

보편문법과 외국어 교육

조 세 경

이 논문에서는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이하 UG)의 틀 안에서 연구되어온 언어습득 모형과 외국어습득 모형, 특히 매개변수 고정이론(Parameter-Setting Theory)을 살펴 보고 이 이론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 갖는 의미와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보편문법과 언어습득

현대의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화자(speaker)의 언어에 대한 지식의 특성들을 기술하며 또한 그러한 지식이 어떻게 습득되어 지고 사용되어 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자연언어들의 구조적 특징들은 하도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그들이 접하는 입력자료(input data)만을 바탕으로 해서 무의식적으로 배운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현 언어학 이론에서 흔히 '논리적 문제(logical problem)'라고 불리우는 어린이들의 실제 듣는 입력자료와 그들이 도달하는 언어와의 불일치는 과거의 이론들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해온 것이 바로 보편문법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로 Chomsky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이론으로 통사이론인 지배와 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1981)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이론은 앞서 언급한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를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배우게 될 언어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이끌어 주는 특별한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이 인지적 구조가 바로 UG이며 어린이들이 언어습득시 세우는 가설(hypothesis)의 유형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칙(principle)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UG의 법칙들은 모든 문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면을 다룬다. 이와 더불어 UG는 어린이들에게 언어들 사이의 상이점을 다루는 매개변수(parameter)를 부여해 준다. 어린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에 다르게 매개변수를 고

정시킴으로써 그 언어에 맞는 문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UG이론은 화장의 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위의 법칙과 매개변수로 기술하며 이런 이유로 해서 '매개변수 고정이론(Parameter-Setting Theory)' 혹은 '법칙과 매개변수 이론(Principle and Parameter Theory)'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이제 위에 언급한 법칙과 매개변수가 어떻게 언어습득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다음 (1)의 한국어 문장을 예로 살펴 보자.

(1) 영희는 철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우선 UG에 구 구조 법칙(Principle of Phrase Structure)이 이 문장의 모든 구(phrase)는 관련통사범주의 핵어(head)를 가져야만 하고 다양한 유형의 보어(complement)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 (1)의 '저녁을 먹는다'와 같은 동사구는 동사 '먹다'를 핵어로 가지며 '저녁'을 보어로 가질 수 있다: 전치사구 '철수와 함께'는 전치사(한국어의 경우 후치사(postposition)) '함께'를 핵어로 가지며 '철수'를 보어로 가질 수 있다: 명사구 '영희는', '저녁을', '철수와'는 명사를 핵어로 가져야만 하며, 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보어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어뿐 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언어에도 적용이 된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 사이의 차이점은 핵어와 보어의 순서(ordering)의 차이에 있다. 한국어에서는 핵어가 보어 뒤에 온다. 동사가 보어인 목적어 다음에 오고('저녁을 먹는다'): 전치사가 보어인 명사 다음에 온다('철수와 함께'). 반면에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핵어가 보어 앞에 놓이게 된다.

(2) John eats dinner with Mary.

위와 같이 핵어의 위치를 놓고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핵어매개변수(Head Parameter)에 의해서 해결되어 진다. 이 매개변수는 핵어가 보어의 앞에 놓이는가 혹은 뒤에 놓이는가에 따라 '전핵어(head-initial)'와 '후핵어(head-final)'의 두가지 유형의 값(value)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한국어는 후핵어를 이 매개변수의 값으로 갖는 언어이며 영어는 전핵어를 값으로 취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이던 영어이던 간에 모든 언어에는 모든 구는 핵어를 가져야만 하고 아울러 보어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구 구조 법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핵어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이 핵어매개변수에 부여된다. 법칙은 이미 선천적으로 언어습득자 마음 속에 새겨져 있으므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매개변수는 다른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일정한 제한 내에서 다룬다.

따라서 UG이론 하에서는 언어습득은 간단명료하다. UG의 법칙들은 언어습득자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칙들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언어습득자들은 그들이 접하게 되는 언어가 무엇이든간에 자동적으로 그 법칙들을 적용하게 된다. 언어습득자들이 접하게 되는 언어가 한국어이건 영어이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 위의 구 구조 법칙처럼 법칙들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매개변수의 고정(setting)은 모든 언어가 일정치 않으며 각기 다른 언어에 맞는 다른 값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점은 그들의 접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특정 매개변수가 어느 값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습득자들은 이미 선천적으로 구 구조법칙을 그들 마음의 일부로써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단지 해당언어의 핵어매개변수가 값으로써 전핵어를 취하느냐 혹은 후핵어를 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은 그들이 접하고 있는 언어로 부터 언어적 증거(linguistic evidence)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화된 실제 문장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 문장 '영희는 저녁을 먹는다'를 듣고 어린이들은 한국어의 핵어매개변수의 값이 후핵어임을 알게 되고, 영어문장 'John eats dinner'을 듣고는 영어는 전핵어를 해당 매개변수의 값으로써 취하게 됨을 안다. 어린이들은 매개변수를 그들이 접하고 있는 언어에 맞는 값으로써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언어적 증거를 실제 언어습득 과정을 통해서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Cook 1989).

2. 보편문법과 외국어 습득

위에서 살펴본 UG이론에 의한 어린이의 언어습득 모형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과연 똑같은 언어습득 모형이 외국어 습득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물론 Chomsky 자신은 외국어 습득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도 없고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과는 아주 다른 과정이기는 하다. 외국어 습득자는 흔히 모국어 습득자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하며, 나이, 교육기간, 동기, 성격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습득자 역시 상당한 정도로 복잡하고 추상적인 대상어(target language)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는 대상어에서의 입력자료만으로는 설명되어지지 못

한다. 달리 말하자면 모국어 습득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습득자 역시 입력자료와 최종적인 대상어에 대한 지식간에 차이가 있다는 논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White 1985, Cook 1988)

그러면 과연 외국어 습득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UG 법칙이 외국어 습득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논리적 가능성은 모국어 습득을 통제하고 이끌어 주는 UG 법칙들이 외국어 습득과정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고 하는 점이다. 최근에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사이에는 일련의 유사 점이 있다 하는 많은 실험적 증거들이 축적되어 왔다. (Cook 1985, 1988; White 1985; Flynn 1987; Lightbown and White 1988)¹⁾

어린이들에 의한 외국어 습득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어린이들의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사이에는 실질적인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Raven(1968, 1974)은 노르웨이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자신의 두 자녀들이 어떻게 영어의 부정어(negatives)와 wh-question을 습득하는가를 조사했는데 그 아이들이 범하는 문법적 실수가 노르웨이어 습득 시 보여지는 발전적 특징(development features)이기 보다는 영어 습득시 보여지는 특징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I not like that.'과 같이 조동사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곤 했는데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실수이다. wh-question의 경우 그 아이들은 이미 노르웨이어에서의 주어-동사 도치법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at she is doing?'과 같은 실수를 범하곤 했는데 이 역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실수이다. 만일 Raven의 아이들이 외국어 습득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았다면 노르웨이어적인 'I like that not.'과 같은 실수를 범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Raven의 연구가 어린이들의 외국어 습득시 UG법칙의 작용여부를 시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UG법칙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왜 어린이들의 경우 외국어 습득의 경우에도 거의 자신들의 모국어 수준에 접근하는 성공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성인들의 외국어 습득의 경우는 과연 UG가 그들에게 아직도 접근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주요한, 그러나 서로 상충되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많은 외국어 습득자들이 처하는 문제들과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할 때 UG의

1) Bley-Vroman과 Chaudron(1988)은 어린이 언어발달과 외국어 습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UG의 가설이 외국어 습득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법칙들이 성인 외국어 습득자들에게는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UG의 법칙들이 성인의 외국어 습득에서도 작용을 하며 그들이 갖게 되는 문법이 UG에 의해 사용되는 문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우리가 성인 외국어 습득자들은 더 이상 UG법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가정하면 왜 성인들은 흔히 외국어 습득을 어린이들처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Clahsen과 Muysken(1986)이 취한 입장이다. 그들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어린이들과 독일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성인들의 어순습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로 독일어를 습득하는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독일어의 일부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독일어도 주어-동사-목적어 순일 것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이를 수정해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lahsen과 Muysken은 어린이들은 UG의 법칙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 문법의 지식을 얻게 되며, 성인들은 UG의 법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일반적인 학습전략(*general learning strategy*)에 의존해서 UG가 자연언어에 부과하는 제한들을 지키지 않는 비자연적인 문법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성인 외국어 습득시 만들어진 그릇된 법칙들은 성인들이 UG 법칙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아직도 UG 법칙들을 가지고는 있으나 어린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일부 매개변수들을 처음에는 독일어에 맞지 않게끔 고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외국어 습득 연구가들이 성인 외국어 습득자들에게도 UG의 법칙들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양의 실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Flynn(1987)의 연구는 성인들도 UG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외국어 습득시 성공적인 매개변수의 재고정(resetting)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Flynn은 두 집단의 성인 외국어 습득자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집단과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집단) 들에 의한 영어습득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초점은 모국어와 습득대상 외국어가 분지 방향(*branching direction*)에 있어서 일치될 때 복문(*complex sentence*)의 습득이 용이하며, 분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복문 습득이 저해받게 된다는 가설을 시험하는 것이었

2) Clahsen과 Muysken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du Pless(1989)는 성인들이 독일어를 외국어로 습득할 때 갖게 되는 어순의 문법이 사실은 핵어매개변수, Proper Government Parameter, Ajunction Parameter에 의해 허용된 system의 범주에 속하며, 그러므로 성인 외국어 습득자들도 UG법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다.

종속부사절(adverb subordinate clause)로 구성된 시험이 자신들의 모국어가 분지 방향에 있어서 영어와 같고 (스페인어), 다른 (일본어) 시험대상자들에게 행해졌다. 이 실험의 결과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성인들과 일본어를 구사하는 성인들 사이에는 해당구문 습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성인들이 스페인어 집단 보다는 훨씬 더 해당 매개변수에 알맞는 값을 고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성인 습득자들은 성공적인 매개변수의 재고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Flynn은 이러한 결과가 매개변수 고정이론과 핵어매개변수의 심리적 실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

성인 외국어 습득자에게도 UG의 법칙들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White(1985, 1988)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hite는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43명의 성인 영어 학습자와 23명의 사춘기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Subjacency와 ECP습득을 연구하였다. 이 시험 대상자들은 Subjacency와 ECP법칙을 어김으로써 만들어지는 실수를 담고 있는 문법성 판단시험(Grammaticality judgment task)와 문장이해 시험을 취했는데 이 연구의 초점은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습득자들이 과연 영어의 Subjacency의 bounding node로서의 S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는 왜냐하면 불어는 영어보다 적은 수의 bounding node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 보다는 넓은 범위의 추출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만일 이 시험 대상자들이 Subjacency에 관한 영어와 불어 사이의 매개변수적 차이를 습득한다면 이는 UG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문법지식은 불어나 영어의 입력자료로부터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Subjacency 법칙을 문법적인 문장에는 적용하며 비문법적인 문장에서는 Subjacency법칙의 위반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White는 이러한 결과를 성인의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UG법칙과 매개변수 재고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써 해석하고 있다.

Flynn과 White가 행한 연구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들은 종래의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이론에서 주장하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전이(transfer)의 존재를 포용하고 있다. 종래의 이론이 전이를 단지 모

3) Eubank(1989)는 아랍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성인들이 어떻게 위에 연구와 똑같은 매개변수를 습득하는가를 Flynn이 쓴 똑같은 방법과 가설 하에서 실험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Flynn의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써 Eubank는 이를 바탕으로 Flynn의 UG와 외국어 습득에 대한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국어 특징들이 대상 외국어에 투사된 것으로만 보아서 과연 두 언어의 어떤 차이 점이 외국어 습득시 어떤 유형의 실수를 유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견하는 예측력이 결여되었으나, 현 UG이론은 이러한 것들을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수의 값의 차이로 설명함으로써 훨씬 폭넓은 예측력을 가능케 해주었다.

둘째, 현 UG이론은 대조분석과 함께 종래의 외국어 습득 이론을 대표하는 창조적 구조(Creative Construction) 이론에서 주장하는 일련의 습득법칙들이 외국어 습득과정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주장도 포용하고 있다 (Flynn 1987). 따라서 현재의 UG이론은 과거 외국어 습득이론을 대표했던 대조분석과 창조적 구조이론의 주장을 모두 포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결점을 보완해줌으로써 언어학적으로 좀더 견실하며 심리학적으로는 좀더 실질적인 외국어 습득이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3. 보편문법과 외국어 교육

이제껏 우리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UG 법칙들이 접근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 봤다. 그에 대한 답은 완전치는 않지만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UG이론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UG이론 자체가 일차적으로 언어지식에 관한 것이지, 언어사용이나 언어발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UG이론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언어의 문법적 지식이지, 어떻게 외국어를 습득하고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어 습득은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언어적인 모든 분야가 함께 관련이 되는 분야이다. 때문에 UG이론이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를 형성하는 많은 부문 중에서도 핵심적인 통사부문을 다루는 이론이라는 점이다. UG는 언어의 여러가지 면 보다는 대단히 추상적인 통사부문의 중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UG이론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 갖는 의미를 논의할 때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이 언급되어질 수 있다. 생성문법의 언어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언어 습득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자연적인 과정(natural process)을 통해 배우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자유방임'적인 것이라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습득자의 마음 속의 내용물들, 그리고 언어습득에 필한 증거들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현 UG이론 하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UG이론은 언어교육 syllabus의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언어교육의 상당부분을 문

법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칙과 매개변수의 개념 하에 문법의 어느 부분은 가르칠 필요가 있고 어느 부분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칙은 모든 언어습득자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UG의 일부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구는 핵어와 보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 구조 법칙 같은 것은 이미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므로 회피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현재 개별적인 규칙(rule)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법교육도 UG이론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 본 핵어매개변수 하나만을 다룸으로써 우리는 이 매개변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 관계절에 있어서의 선행사의 위치 등 어순에 관한 규칙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우리가 매개변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언어교육시 최대한의 언어적 증거를 제공시키는 방향으로 syllabus를 조정, 해당 매개변수를 빨리 그리고 쉽게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UG이론에 의한 외국어 습득이론은 이제껏 나온 이론들 중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것이다. UG이론의 장점은 현재의 언어학을 선도하는 문법이론을 실제 외국어 습득이론과 잘 연결시켜준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분명히 외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핵어매개변수와 같은 많은 현상들이 빛을 보게 해주었다. 물론 통사부문의 핵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론에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어떤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G이론은 우리에게 언어습득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인간 마음 속에서 언어지식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Bley-Broman, R. & C. Chaudron. 1988. Review essay: a critique of Flynn's parameter-setting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 Sato (ed.), *University of Hawaii Working Papers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7, 1:67-107.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lahsen, H. and P. Muysken. 1986. The availability of Universal Grammar to adult and child learners: a study of Goerman word order. *Second*

- Language Research* 2: 93-119.
- Cook, V. 1985. Chomsky's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6: 2-18.
- Cook, V. 1988. *Chomsky's Universal Grammar*. New York: Basil Blackwell.
- du Plessis, J., D. Slobin, L. Travis and L. White. 1987. UG or not UG, that is the question: a reply to Clahsen and Muysken. *Second Language Research*.
- Eubank, L. 1989. Parameter and L2 learning: Flynn revisited. *Second Language Research* 5: 43-73.
- Flynn, S. 1987. *A parameter-setting model of L2 acquisition*. Dordrecht: Reidel.
- Lightbown, P. M. and L. White. 1988. The influence of linguistic theories on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description and explanation. *Language Learning* 37: 483-510.
- Raven, R. 1968. Language acquisition in a second language environment.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6: 175-185.
- Raven, R. 1974. The development of Wh-questions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ers. In J. C. Richards (ed.),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Longman.
- White, L. 1985. Is there a logical problem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L Canada* 2, 2: 29-41.
- White, L. 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